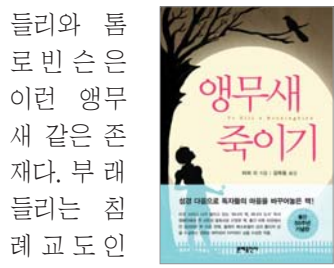


행복한 책임기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문예출판사 刊>

편견은 어떤 대상의 일부분밖에 보지 못하게 하는 불투명 렌즈와 같은 것이다. 불투명 렌즈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까닭에 생각이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편견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 까닭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다.

사실 편견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기는 하다. 사람에 대해, 혹은 환경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편견을 갖고 산다. 그리고 대상이 무엇이든 어느 일부만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며 쉽게 판단을 내려버린다. 마치 프로그램이 작동하듯 아무 생각 없이 말이다. 편견이 감정적인 판단과 잘 맞는 것은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들리와 톨로빈슨은 이런 앵무새 같은 존재다. 부러워하는 침례교도인 아버지의 편견에 의해 이십여 년 동안 집안에만 갇혀 지냈고 톨로빈슨은 흑인은 무조건 죄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희생당한다.

톨로빈슨을 변호하게 된 에티커스 핀치 역시도 '감동이의 애인'이라고 불리는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에티커스 핀치는 그 편견에 꿰뚫히게 맞서 싸우며 핼과 스카웃에게 이렇게 말한다. "손에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패배할 수 있어. 그래

모두 함께 키워온 나무... 아낌 없이 주는 공간으로

헌책방 '아낌 없이 주는 나무' 3년

- 500 정기 물품 기증자
- 35,712 물품구매 기부동참자
- 180,129 자연 되살린 도서
- 262,567,250 판매 수익금
- 100 활동 천사들



작은 씨앗들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물을 주고 보살피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났다. 줄기가 뻗어나가고, 근사하게 자란 나무는 진한 그늘을 드리웠다.

나눔과 재사용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헌책방 '아낌 없이 주는 나무' (광주시 북구 용봉동)가 오는 17일로 개점 3주년을 맞는다. 도서 기증, 자원봉사, 구매를 통해 모두 함께 키워 온 공간이다.

헌책방은 지난 2009년 많은 사람들의 '정성'으로 탄생했다. (주)화인테크 이상철(헌책방 명예집장)대표가 넉넉한 공간을 기부했고 미래에셋이 공정무역카페 운영을 위한 집기와 1만 권 도서를 기증했다. 또 공간 디자인과 내부 공사를 위한 전문가 재능기부가 이어졌고, 100명의 씨앗기금과 씨앗도서 기증자들이 힘을 보탤었다.

3년이 지난 현재 기증받은 책 2만

7000여권이 빼곡이 들어차 있고, 공정무역 카페에서는 차와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리사이클링 상품인 '에코파티 메아리' 제품도 인기가 많다.

헌책방이 오픈한 후 개인을 비롯해 고려시멘트, 경신중, 광주학부모동맹회, 공군전투비행단 등 다양한 단체들이 책나눔 행사를 통해 책을 기증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과 나눔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증된 도서는 모두 18만 129권(16만200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 수익금은 2억6256만 7250 원에 달한다. 물품 구입을 통해 기부해 동참한 사람은 3만5712명에 이르렀고 500여명의 정기적인 물품 기증자, 100여명의 활동천사들은 헌책방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또 공정무역 제품 4232점 판매액은 제3세계 카카오·커피 농가에 보내지고 1만3216점의 공익 상품이 위탁 판매 환경을 생각하고 취약계층의 자



오는 17일로 개점 3주년을 맞는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공간, 집기, 책, 재능을 기부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문을 연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공>

16일 기념식... 광주일보·미미앤리본 감사패

공정무역카페·그림책읽기·영화제 등 진행

활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에 지원했다.

헌책방에서는 책을 구입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광주인권영화제와 환경·인권·사회문제 등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를 상영하며 주부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다양한 리본을 제작해보는 '엄마표 리본 만들기'(매달 셋째 주 금요일), 광

주색동어머니동화연구회와 함께하는 '그림책 읽는 책방'(매월 넷째 주 토요일), 무각사 야외버룩시장 '음직이는 책방'(매달 넷째 주 토요일) 등이 대표적이다.

아낌 없이 주는 나무는 16일 오전 10시부터 하상용(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오원만(헌책방 운영위원장)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주년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랜 후원자인 미

래셋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책 나눔이 펼쳐지며 그림보 출판사('얼음소년' '작은 당나귀')와 보리 출판사('호랑이 뱃속잔치', '동물 세밀화')의 그림책 원화 전시와 체험행사, '에코파티 메아리' 할인 이벤트, 경품 추첨 이벤트, 디자이너 편집샵 '앙코르 52'와 함께하는 '영! 한 번 더 기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기념식에서는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광주일보사가 기증천사대표 감사장을, 미미 앤 리본은 재능기부천사 감사장을 받는다.

헌책방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7시. 문의 062-655-897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

고 했다. 그만큼 판단은 빠르지만 바깥지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편견이다.

이런 편견은 단단한 타조 알과 같아서 그것을 깨뜨리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타조 알 같은 편견을 깨뜨리고 난 뒤 얻어지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앵무새 죽이기'에서 앵무새는 기쁨과 양심의 상징이다. 정의로운 변호사 에티커스 핀치는 핼과 스카웃에게 공기총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며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체소발에서 무엇을 따먹지도 않고 옥수수 창고에 등자를 틀지도 않고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디 아줌마의 말이다. 부러

도 아팠든 새로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용기야."

물론 에티커스 핀치는 톨로빈슨의 재판에서 배심원의 관점에 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러워하는 데 대한 편견을 깨뜨리게 된 스카웃은 이렇게 독백한다. "아빠가 옳았다. 언젠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래들리 아저씨네 집 현관에 서있는 것 만으로도 충분했다."라고

이런 편견은 사람 대 사람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배이건은 '지식은 곧 힘이다.'라고 했다. 이는 자연을 인식할 수 있으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올바른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환상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예전 삼복더위에 맞먹는 날씨 예보를 들을 때면 이와 같은 배이건의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이현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한국화 대상작 조선아 작 '아화지몽'



제48회 전남도미술대전 1110점 입상

전남도-예총, 한국화·서양화 등 9개 부문 수상작 발표

제 48회 전남도 미술대전에서 '아화지몽'을 출품한 조선아(35)씨가 한 국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와 전남예총은 13일 미술대전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할 벌인 결과, 한국화·서양화·서예·사군자(문인화)·사진·공예·조각·건축·시각디자인 등 9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총 2055점이 출품됐으며 출품작 중 대상 7점, 우수상 8점,

특선 348점, 입선 747점을 선정했다.

<수상자명단 광주일보 홈페이지 참고>

부문별로는 ▲서양화 박영현 '여인' ▲서예 민선오 '도연명사' ▲사군자 박양수 '천년의 향기' ▲공예 장원선 '흐름-결' ▲건축 이신영·김술기·김상원 'The Light Box' ▲시각디자인 강도은 '사과 밀감' 등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조각 부문에서는 대상을 내지 못했다.

수상자들에게는 부상으로 대상은 각각 500만 원, 우수상은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오는 7월 13일 오후 3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또 같은 달 13~17일과 22일~26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수상작과 추천작가, 운영심사위원의 작품을 부문별로 전시하고 여수전남문화예술회관에서도 27일~31일까지 수상작 전시가 이뤄진다. 문의 062-351-7506. /김지용기자 dok2000@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듀파크주한**